

## 이상 공동체의 3요소

| 용타스님 |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 요소인 수심, 화합, 작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2부)

## 008. 인생과 느낌:

사람이란 마음과 몸이 어우러진 유기체이다. 사람의 마음을 관찰해보면 무엇인가를 아는 지성(知性) 영역[知]과 무언가를 느끼는 감성(感性) 영역[情], 무언가를 행동하는 의지(意志) 영역[意]이 어우러져 있다. 지성축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연구나 학문 쪽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고, 감성축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예술 쪽이나 인생을 즐기는 쪽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으며, 의지축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몸을 던져 실천하는 쪽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원리가 있는데 사람 마음의 지정의(知情意)를 잘 살펴보면 정(情)은 목적 기능이요, 지(知)와 의(意)는 수단 기능이라는 점이다. 즉 왜 알고[知] 하는가를 살펴보면 알아버려야 기분[情]이 좋기 때문이요, 어째서 행동[意]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가를 살펴보면 이루어버려야 기분이 좋기 때문이다. 곧 인생은 행복지향이요, 느낌지향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 009. 입장기초신념(臨場基礎信念):

인생이란, 순간순간 어떤 공간[場]에 처하여[臨] 어떤 역할을 하는 과정으로 엮어진다. 혼자 방안이나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와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많은 대중 속에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장(場)에 임(臨)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가정 공간에

가족과 더불어 있을 때 혹은 직장에서 동료직원들과 더불어 있을 때, 그 공간의 그 상황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혼자 있는 공간도 마찬가지다. 그냥 멍하게 있기도 할 것이고, 무엇인가 생각도 할 것이고, 습관대로 이것저것 떠오르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있는 자리를 유념하면서 설문을 던져보자. ‘이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리라!’ 하는 마음가짐은 어떠할까? 자기가 임한 공간을 천국으로 만들리라 하는 마음으로 있다는 것, 좋을 것 같다. 사실상 이것은 억지가 아니고 당연한 순리(順理)이다. 인생이 ‘나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면 자신이 이 순간에 처한 이 공간을 행복한 공간, 곧 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 또한 당연한 순리적 마음가짐일 터다.

어떤 가장(家長)이 가족과 더불어 존재하는 가정 공간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한 것 같은가? 마찬가지로 직장의 보스가, 학교의 선생님이 그러하다면 그 소속 공동체가 어떠한 것 같은가? 어찌 가장이나 보스나 옷어른에 국한할 일이겠는가? 우리 집 막내둥이가, 말단 신입 사원 하나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 가정 공간에, 내 직장 공간에 하루하루를 그러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어찌 천국이 멀리 있겠는가? 장(場)에 임하는[臨] 기초신념이 그러한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말씨 하나 행동거지 하나부터 다를 것이다.

자기가 처해 있는 공간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이는 바로 주인이다. 장을 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이는 이미 ‘나는 있는 곳의 주인이다.’라는 기초 신념을 전제 신념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입장기초신념 1: ‘나는 있는

곳의 주인이다.’ 입장기초신념 2: ‘이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리라!’ 정도로 정리해도 좋을 것이다. ‘나는 주인이다.’ 얼마나 좋은가? ‘주인인 나는 천하를 불국토로 만들리라!’ ‘우주의 주인인 나는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공동체를, 내 나라를, 이 지구를, 나아가 무한 우주를 천국으로 만들리라!’ 참 좋다.

입장기초신념을 하나 더 보태어가도 된다. 하나 더 보탠다면 ‘나부터 천국이 되리!’이다. 뭐니 뭐니 해도 자기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법이다. 대승적으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를 먼저 선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그러하리라는 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을 뒤세우는 것이 이 시대에 더 맞는 순서일 것이다.

가정이 파탄 직전에 있다고 한 수련생 한 분이 수련 첫날 첫 시간에 입장기초신념의 강의를 듣고, “아하, 거기서부터 내가 잘못이었습니다.” 하면서 감동하던 모습이 인상적으로 기억되고 있다. 가정이 뒤죽박죽 된 것은 본인 탓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 때문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려왔던 그 수련생의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 것인가는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사실상 바로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요, 거기에서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우선 모든 가장(家長)이 이러한 기초 신념을 지니고 산다면 가정의 평화는 보장될 것이요, 세상의 다양한 공동체의 장(長)이 그러하다면 공동체 평화는 보장될 것이다. 하물며 가족 전체가, 팀원 전체가 그러하다면 더 말할 나위 있으리요. 한국 불교가 가장 의지하는 경전은 금강경이다. 그 금강경의 핵심 개념 셋 중에 첫째는 지고한 경지인 니르바나에 이르기 위한 기초 조건으로 ‘모든 중생을 지고한 니르바나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소망(발원, 서원)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임장기초신념이 인격으로 익어가고 있는 사람은 분명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부터 달라질 것이다. 얼굴부터 화안(和顔)이 되고 미소가 감돌 것이며 말씨는 보다 부드러워질 것이다. 칭찬 한마디라도 더 나올 것이요, 대화를 하더라도 자신을 표현하기보다는 정성스럽게 다른 이를 경청하게 될 것이며 작은 일에도 감동을 할 것이다. 작은 잘못에도 사과할 줄 알고, 작은 은혜에도 깊게 감사하게 될 것이요, 무슨 서비스로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어느 곳에 있거나 <나는 있는 이 자리의 주인이다> <이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리라> <나부터 천국이 되리라> 등의 임장(臨場) 기초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인품의 기 다짐이 된 사람이다.

## 010. 인생관(人生觀)

지난 번 글에서 Frame의 중요성을 힘주어 언급했었다. Frame 하면 인생관(人生觀)이 대표적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나의 인생관은?’하고 자문(自問)해 본다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인생이란 무수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일 터, 보다 우선적으로 조명해 볼 측면들이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인생(人生: 삶)이라는 것에 있어 우선적인 요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삶(인생)의 주체(主體)인 <나(자아)>이니, <나>에 대한 관점을 보다 바람직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그 <나>가 무엇인가를 위(爲)하여, 혹은 향(向)하여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이 인생일터, <그 무엇인가>라는 삶의 목적을 정해야 할 것이요, 나아가 <나>가 <그것>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나는 수련장에서 체(體: 몸)가 되는 두 측면과 용(用: 몸짓)이 되는 세 측면을 합하여 다섯 가지 측면

을 조명하게 한다. 무수다양한 측면이라 했지만 그 다섯 가지 측면이면 전부일 것 같은 감이 든다. <지금여기> 독자 여러분에도 간곡한 마음으로 권하는 바인데, 수련회장에서 조명하는 다섯 가지의 측면, 곧 인생관의 체(體:몸) 측면인 정체(正體)와 대원(大願), 그리고 용(用:몸짓) 측면인 수심(修心), 화합(和合), 작선(作善)에 대해 사유(思惟:명상)를 해보시기 바란다. 앞에서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단연 Frame이라고 강조했다. Frame 하면 또한 인생관(人生觀)이 대표적이며, ‘인생관!’하면 <정체-대원-수심-화합-작선>이다. 곧,

<정체(正體)>: 보살행의 도구요 밑거름인 이 일물(一物:나)은  
 <대원(大願)>: 모든 존재의 행복해탈(幸福解脫)을 위해  
 <수심(修心)>: 수심(修心) 잘하여 마음 천국 이루고  
 <화합(和合)>: 화합(和合) 잘하여 관계천국 이루며  
 <작선(作善)>: 작선(作善) 잘하여 세상천국 이루리라.

라는 것이다. 삶의 주체요, 주격(主格)인 자아(自我)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해야 할까? 설정된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법 가치관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것이 인생관 정립의 골격이 될 것이다.

011. 이상공동체삼요(理想共同體三要) – 이상공동체오요 (理想共同體五要) :

사람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항상, ‘나는 이곳의 주인이다. 그러하니 주인으로서 이곳을 천국으로,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리

수심이란 마음속에 행복을 가로막는 심리적인 요소  
〈부정 염체(念體)〉는 제거하고 행복에 도움되는 심리적인 요소는  
장착(装着)하는 것이 수심이다.

라!’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좋고 좋을 것이다. 이때 천국인 이곳,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이곳은 바로 이상공동체(理想共同體)라 일러도 좋을 것이다. 이상공동체(理想共同體)! 얼마나 많이 떠올렸던 생각인가! 내 가정을 이상공동체로 만든다, 내 직장을 이상공동체로 만든다, 내가 소속하는 모든 공동체를 이상공동체로 만든다, 국가공동체-지구공동체-태양계은하계우주공동체를 이상공동체로 만든다..... 평생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면서 살아온 것이 나, 용타라는 사람이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그것이 젊은 날의 꿈이었고, 평생의 화두이다. 아주 젊은 날 〈이상공동체,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를 화두로 들고 다녔고, 10여년 만에 얻어낸 답이 이상공동체삼요(理想共同體三要)였다. 답이라는 것은 참 명랑하다. 얻기 전에는 그렇게도 막막하던 것이 얻어낸 다음에는 그렇게도 당연한 것이요, 지극히 자연스런 것이니 말이다.

여기에 부모와 자녀 몇 명의 가정이 있다고 하자. 이 가정이 이상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람 사는 곳이니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니 말은 바 일들을 잘하면 된다. 곧 〈작선(作善)〉이다. 또 여러 사람이 더불어 사니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 할 것이다. 곧 〈화합(和合)〉이다. 그리고 인격으로서의 사람이니 각자가 행복해야 할 것이다. 곧 〈수심(修心)〉이다.

〈수심(修心)-화합(和合)-작선(作善)〉! 이상공동체삼요(理想共同體三要)다. 이 세 개념의 정립을 완성하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하면

누가 수궁할까? 그것을 정립해 놓고 노벨상 감이라고 기뻐했다고 하면 누가 웃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이다. 노벨상 감이라고 기뻐하던 그 청년, 돌아보니 웃음이 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입장기초 신념(臨場基礎信念)과 이상공동체삼요(理想共同體三要)이면 그것이 삶의 전부라는 점이다.

나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수심하고

화합하고

작선한다

주인인 나는<<정체(正體)>>

우리 모두의 천국을 위해<대원(大願)>

안으로 마음을 닦아 마음천국 만들고<수심(修心)>

밖으로 화합을 잘하여 관계천국 만들며<화합(和合)>

나아가 작선을 잘하여 공동체 천국 이루리라.<작선(作善)>.....

천하의 주인이요, 보살행의 도구이며 밑거름인 이 일물(一物)은

무한우주에 있는 유형무형 유정무정의 모든 존재들의 행복해탈과 맑

고 밝은 상생 기운을 위하여 이 일물의 전 존재 전 에너지를 기하여

전하오니 무량한 복덕이 향상되소서.

이에 안으로 수심을 잘하여 마음 천국 이루고

밖으로 화합을 잘하여 관계 천국 이루고

나아가 소임, 비소임의 작선을 잘하여 세상 천국 이루리라.

위 〈정체(正體)-대원(大願)-수심(修心)-화합(和合)-작선(作善)〉을 이상공동체오요(理想共同體五要)라 하고 이것을 5박6일간 합숙을 하면서 연수를 하거니와, 이 다섯 덕목 정도를 잘 사는 것으로 인생은 충분하지 않겠는가 한다.

## 012. 정체(正體):

정체란 자아관을 뜻한다. ‘의 정체를 밝혀라!’ 하면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यो.’라고 답할 때 〈이런 사람인 나〉가 그 사람의 자아관이요 정체이다. 어떤 자아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삶에서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일단 주인 정신부터 지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관은 우선적으로 지양(止揚)해야 한다. 사람이 스스로를 비참한 자라고 여기거나 운이 없는 자라고 여기거나 가능성이 없는 자라 여기는 등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정(否定)적인 자아관을 지양하고 긍정(肯定)적 자아관을 갖는 일이야말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나아가 초월(超越)적 자아관이 정립되고 체화되면 지고(至高)한 인품의 토대가 확보된다. 초월적 자아관이 정립된 바탕위에서라야 일체의 개념, 일체의 한계를 벗어난 묘유(妙有)적 자아관으로 살 수 있다. 묘유적 자아관이란 일체(一切)가 비아(非我)이되 또한 일체가 나 아님이 없는(無非我) 산산수수(山山水水)의 자아관이다.

## 013. 대원(大願):

대원이란 직역하면 큰 희망, 큰 소망이요, 우리 모두의 행복 해탈을

바라는 마음, 곧 목적 가치관이다. 곧 대원이란 소속공동체(가정~무한우주)에 있는 유형무형 유정무정의 모든 존재들의 행복 해탈을 소망하고 이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리라 하는 마음이다. 대원의 인격이 되고자 한다면 네 가지 정도를 유념하는 것이 좋다. 사무치는 대원의 마음을 가질 일, 가능한 한 양적으로 보다 전체를 아우를 일, 우리나라는 마음으로 기전향(起傳向: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起) 대상에게 전(傳)하면 대상이 되는 존재는 그 존재방식이 향상(向)된다)의 기도를 할 일, 최우선적으로 바로 자신의 가정과 직장 공동체부터 대원으로 끌어안을 일 등이다. 대원관(大願觀), 곧 대원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진정 부처가 다 된 듯 좋다. 무한 자비심을 경험할 때 ‘아! 이것이 지복(至福)이로구나!’ 해진다. 이러한 대원지심(大願之心)의 바탕 위에 걸림 없는 마음으로 보살행을 하고 사는 것이 궁극의 삶 아니겠는가!

#### 014. 수심(修心):

〈수심-화합-작선〉은 우리 모두의 행복〈대원(大願)〉을 위한 세 가지 길이다. 그 중 수심(修心)이라 하면 마음을 닦는다는 것이겠는데, 마음을 닦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평생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평생 지도하고 있는 나로서 나름의 방법론을 환하게 가지고 있다. 우선 수심의 정의를 내려 본다면, 수심이란 마음속에 행복을 가로막는 심리적인 요소 〈부정 염체(念體)〉는 제거하고 행복에 도움되는 심리적인 요소는 장착(裝着)하는 것이 수심이다. 즉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과 같은 것은 제거해야 할 부정 염체요, 지혜로운 깨달음 체계들은 장착하면 좋은 긍정 염체들이다. 수심체계는 주(主)가 되

는 수행법 하나와 조(助)가 되는 몇 개의 조행법으로 세우는 것이 좋다. 동사섭수련은 한 개의 주바라밀(主波羅蜜)과 네 개의 조바라밀(助波羅蜜)과 무수한 세바라밀(細波羅蜜)로 체계화되어 있다. 인생이란 마음의 투영(投影)이라 볼 때 인생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마음 자체를 바로 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했다. 인생과 역사의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든다. 바람직한 마음이 아니면 바람직한 인생, 바람직한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 가까이에서 탐욕이 심한 이, 분노가 심한 이를 경험해본 일이 있거나, 상황 상황에 이성(理性)적이지 못한 사람을 경험해본 일이 있다면 수심(修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015. 화합(和合):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여차저차한 내가,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우선 스스로 수심(修心)을 잘하여 큰 행복·해탈을 산다면 좋을 것이다. 나아가, 나 개인만의 세상이 아닌 이웃과 더불어 공존하는 세상이니, 내 주변 사람 내지는 일체 존재와 평화로운 관계, 곧 화합(和合)하는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다른 존재와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물음을 묻게 된다. 본 수련회에서는 〈화합(和合)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절묘한 화합의 길이 제시되고 그 익힘을 위한 실습을 반복 실시한다.

#### 016. 작선(作善):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여차저차한 내가, 모두

의 행복을 위하여, 우선 스스로 수심(修心)을 잘하여 큰 행복·해탈을 산다면 좋을 것이요, 함께 하는 이웃과 화합(和合)을 하여 사이좋은 관계가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나아가,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소임(所任)의 일들과 혹은 소임 이외에 다양한 비소임(非所任: 비소임의 소임)의 일들을 잘 작선(作善)한다면 공동체는 보다 완벽해질 것이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용타스님은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안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주지, 성륜 문화재단 이사,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10분 해탈>이 있다.

# (재) 행복 마을



##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저자 용타 | 출판사 대원사 | 정가 12000원

용타 스님의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마음 닦는 일에 대한 불교 관점의 입문서이자 지침서다. 불교월간지 『대중불교』 등에 실어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행복과 행복의 조건, 생활 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의로의 산책, 명상 잡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10분 해탈 - 용타 스님의 생활 수행 이야기

저자 용타 | 출판사 불광 | 정가 12000원

생활도 수행이다!

용타 스님의 생활 수행 이야기, 『10분 해탈』 불교의 근본적 가르침뿐 아니라, 선불교를 바탕으로 현대 심리학과 상담학을 끌어들이며 '동사섭(同事攝)'이라는 집단수행프로그램을 만든 저자의,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대원사,

1997년)에 이은 두 번째 수행 지침서다.

이 책은 불교 월간지 『불광』에 3년간 연재해온 <생활 수행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매일 1편씩 10분간 읽으면서 해탈을 이루어 궁극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 동사섭 수련프로그램 안내

**동사섭(同事攝)이란**, 불교의 사섭법(四攝法 : 布施攝·愛語攝·利行攝·同事攝) 중의 한 개념이다. 사섭법이란 보살이 중생을 향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베풀고(보시섭), 경우에 따라서는 자애 어린 말로 더붙고(애어섭), 또는 이로운 일로 도와주고(이행섭), 나아가 그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동사섭) 삶의 태도를 말한다. 본 동사섭수련회에서는, 동사섭의 개념을 사섭법 중의 동사섭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되 보시, 애어, 이행을 다 아우르며, 세상에 존재하는 유정 무정의 개체가 낱날이 우주의 주인공이되 낱날이 서로 평등하게 어우러져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만 존립할 수 있으니 우주 전체가 한 생명체일 수밖에 없다는 일체(一體) 사상을 뜻매김하여 쓰고 있다.

**동사섭 수련프로그램**은 용타스님이 개발한 마음수련 프로그램이다. 칼 로저스의 엔카운터를 씨앗으로 하여 1980년부터 수련하여 왔다. 현재는 <삶의 5대 원리-정체(正體)·대원(大願)·수심(修心)·화합(和合)·작선(作善)의 원리>를 학습 주제로 하여, 의식의 전개 과정을 일상의 삶 속에서 지인(至人)의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이론과 실습의 체계로 수련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과정**(5박6일), **중급과정**(3박4일), **고급과정**(3박4일)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평소에는 홀수 달, 셋째 주 월요일에 개설되어 있다.

홈페이지 : <http://www.dongsasub.org>

연락처 055-962-1070 / 이메일 [office@dongsasub.org](mailto:office@dongsasub.org)